

‘디스크’로 상품화하는 도서목록

영국서 서비스산업으로 浮上... 수요자에 인기 모아



위태커출판사에서 제작, 시판 중인 CD-ROM 광고. "미래가 여기 있다"는 문안이 인상적이다.

컴퓨터를 비롯한 테크놀로지의 혁명은 이제 전세계 출판계에서 그 영향력을 깊숙이 행사하고 있다.

최근 출판의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영국 출판계의 일단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기자는, 나날이 변화해가는 기술혁명에 적응하는 한편 독자들의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변모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출판사와 서점 및 도서관 그리고 독자를 연결짓는 컴퓨터 정보망의 발전이 최근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각종 출판물의 홍수 속에서 방향감을 잃기 쉬운 독자들을 위해 도서정보의 컴퓨터화를 서두르는 영국 출판계의 움직임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판업무의 과학화 위해 ISBN이 필수적

영국 출판계에서 컴퓨터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한 출판인으로는 위태커출판사(J. Whitaker & Sons Ltd)의 데이비드 위태커사장을 꼽을 수 있다.

‘출판인들을 위한 출판’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위태커출판사는, 월간 도서정보지 「북 셀러」(Bookseller)를 발행하는 한편, 영국에서는 유일하게 ISBN에이전시를 운영하여 새로이 출간되는 도서에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을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출판연감 및 도서목록을 출판해내고 있다.

데이비드 위태커사장은, 영국 내에서만도 매달 2만수천종씩 발행되는 도서들에 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이용을 피할 수 없는데, 이처럼 정보를 컴퓨터화하기 위해서는 ISBN제도의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ISBN은 쉽게 말해서 자동차나 전화번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ISBN을 사용하기 시작한지 20여년이 지난 최근에 들어서야 그 유용성이 인식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출판물량은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신문·잡지를 통한 도서정보나 도서관의 목록카드를 뒤지는 종래의 방법으로는 각 개인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지요. 따라서 도서정보를 과학적으로 정리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됐는데, 바로 이때 ISBN넘버가 정보의 열쇠 역할을 하면서 제 기능을 다하게 된 것이지요. 최

근에는 ISBN에 따라 수천권의 책에 관한 정보를 수록해놓은 데이터 베이스의 이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서점과 출판사 간에 행해지는 텔레 오더링(tele-ordering)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어, ISBN과 컴퓨터가 없으면 출판의 각종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출간되는 모든 책이 반드시 ISBN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군소출판사가 ISBN에 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또는 특정 독자들을 위한 한정본이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경우 굳이 위태커의 에이전시를 접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현재 에이전시와 접촉하고 있는 출판사는 대략 200여 곳. 매주 1500여종의 신간이 ISBN을 부여 받는데, 해당 절차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무료다. ‘영국 출판계의 합리적 운영을 돕기 위한 순수한 비영리 사업’이라는 게 데이비드 위태커 사장의 말이다.

도서정보 컴퓨터화의 선두주자 위태커社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파악된 신간 정보는 매달 발행되는 「북 셀러」지의 신간도서목록에 수록되는 한편 각종 책으로 묶여져 출판되고 있는데, 지난 1970년부터 세계 최초로 도서목록의 마이크로 피시화를 이룩해 상품화를 꾀하여 왔다.

더구나 지난해 12월부터는 CD-ROM (Compact Disc-Read Only Memory)에 정보를 수록해 일반에게 시판하기 시작, 영국내에서는 물론 국외의 출판계·도서관 종사자 및 개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CD-ROM은 피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술혁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지름 10cm 정도의 콤팩트 디스크에 저자·출판사·출판일·가격·면수는 물론 책의 개요에 이르기까지 신간 5천종과 기간도서 10만여종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록할 수 있다. 특히 마이크로 피시를 이용할 경우, 최소한 ISBN이나 저자·책명을 알아야 만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비해, CD-ROM은 각 분야의 도서목록을 자유자재로 찾을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을 갖고 있어 컴퓨터의 대중 보급과 함께 앞으로 더욱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태커 출판사의 전산부에서는 매달 한번씩 최신 자료를 독일의 콤팩트 디스크 제작업체에 보내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980파운드(영국내 가격)를 지불하면 1년치 12개

출판계에도 콤팩트 디스크

시대가 도래했다.

CD-ROM으로 대표되는

컴퓨터 도서목록에는 15만권

이상의 책에 관한 각종

정보가 수록된다.

를 매달 공급받을 수 있다. 980파운드라면 디스크 한개에 82파운드(한화 약 11만원)꼴에 해당해 비교적 고가품이나, 관계자들은 콤팩트 디스크 제작기술의 개선에 따라 좀더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내다봤다.

상업적 가능성을 증명한 북 데이터社

위태커 출판사의 데이터뱅크가 ISBN에이전시라는 비영리기구의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북 데이터사(Book Data Ltd.)의 그것은 출판사가 아니면서도 순수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각종 도서정보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영국 출판업계의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을 끈다.

1987년 10월, 2년에 걸친 준비 끝에 설립된 북 데이터사는 8명의 젊은 편집자들(현재 24명)이 주축이 되어 시작되었는데, 지난 3월 런던 북 페어를 통해 영국 출판계에 소개되면서 최근 급성장을 이룩한 젊은 회사다.

북 데이터의 관리부장 프랜시스 베네트는, “우리는 책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가까운 예로 위태커 출판사의 데이터뱅크는 영국에서 ISBN을 부여받은 도서만을 수록하지만, 우리는 전세계에서 출간된 영어도서·전문잡지·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북 데이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4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신간 및 기간 도서목록을 담은 마그네틱 테이프 및 플로피 디스크 등을 매주 제작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컴퓨터 레코드 서비스’, 서점인들을 위해 최신간 도서정보를 제공하는 ‘캐탈로그 서비스’, 매달 정규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분야의 신간, 기간도서목록을 보내주는 ‘Bulletin 서비스’, 그리고 전화·텔레텍·팩시밀리·서신 등을 통해 특정분야

의 세부목록을 제공하는 ‘북 리스트 서비스’ 등이다.

북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4백여개의 목록으로 세분되어 있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정확히 알아낼 수 있으며, 1주일마다 새로운 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로 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콜린스 그룹, 롱맨 그룹, 펄링 그룹, 옥스포드대학 출판부 등 영국내 36개의 크고 작은 출판사들이 북 데이터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사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출판계 최근 동향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얻고 있다.

“서점의 판매동향에 관한 사항도 상세히 정보화하고 있어,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위한 자료까지 얻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것이 베네트부장의 설명이다.

해외로부터의 호응도 점점 높아가는 추세인데, 전세계 80여 곳에 개설돼 있는 영국문화원(The British Council)과의 밀접한 협조를 통해 비영어권 지역으로도 정보수출을 꾀하고 있다고 수출마케팅 매니저 카미첸은 말한다.

출판과 컴퓨터의 밀월시대 도래

앞에서 살펴본 두 회사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는 ‘책’이라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 더욱 많이, 더욱 신속하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려는 영국 출판계의 적극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이제 ‘책’ 자체 뿐 아니라 ‘책에 관한 정보’역시 출판계의 어엿한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매일매일 쏟아지는 책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려내기 위해 최첨단의 컴퓨터·통신기술을 받아들이려는 출판계의 과감한 변모 노력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 런던에서 오애리 기자